

6·25전쟁의 성격과 개전 책임문제

이완범*

I. 서론

II. 전쟁의 기원과 성격 규명을 둘러싼 논쟁: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외인론과 내인론

III. 개전의 주도자

IV. 맺음말

〈논문요약〉

한반도에서 발생한 6·25전쟁을 두고 그동안 전통주의적 시각과 수정주의적 시각이 팽팽히 맞서왔다. 본 글에서는 그동안 6·25전쟁의 성격과 기원에 대한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그리고 외인론과 내인론으로 전개되어 왔던 과정을 살펴보겠다. 특히, 남북한의 6·25관련자료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관련국들에서 자료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6·25전쟁의 성격과 기원을 설명해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분단 형성 국면에서는 외인이 상대적으로 주도적이었다는데 이론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전쟁 발발 국면에서 외인과 내인 어느 쪽이 더 주도적이었는지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6·25전쟁은 내전이자 국제전이고, 국제전이자 내전이었다. 결론적으로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 분단' 구조가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을 발발하게 했으며 소련이 개입을 은폐하자 형식적으로는 '내쟁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의 양상을 보였으나 미·중 참전으로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으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전화되었다. 현재까지 6·25전쟁의 성격은 복합전으로 보는 것이 우세하며 개전의 책임문제에 있어서는도 남침에 의해 개전되었다는 사실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 주제어: 전통주의, 수정주의, 6·25전쟁, 국제전, 국내전, 복합전

I. 서론

미국 국제정치학계를 중심으로 ‘전쟁의 기원’ 문제에 관한 여러 논쟁들이 있었다. 정통적(orthodox) 이론인 전통주의(traditionalism)적 견해를 수정하려는 수정주의(revisionism)¹⁾ 출현으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냉전의 기원문제에 한정해서 본다면 전통주의자가 ‘공격적 소련과 방어적 미국’의 맥락에서 냉전의 출현을 해명하는데 비하여 좌파수정주의자는 공격적 행동을 보인 쪽은 미국이며 오히려 소련이 방어적-수세적 대응을 보였다고 주장하였다.²⁾ 이러한 책임전가식의 대립구조 속에서 개디스(John Lewis Gaddis)등의 후기수정주의자(post-revisionist)들은 미·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兩非論)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는 6·25전쟁³⁾의 기원과 성격을 보는 견해에서도

- 1) 수정주의는 1차대전 기원에 관한 ‘세계대전 수정주의,’ 2차대전 기원에 관한 ‘우파수정주의,’ 냉전의 기원에 관한 ‘좌파수정주의’ 등이 있다. Athan G. Theoharis, “Revisionism,” Alexander DeConde, ed., *Encyclopaedia of American Foreign Policy*, vol. I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8), pp. 900~914.
- 2) William Stueck, “Revisionism and the Korean War,” *The Journal of Conflict Studies* vol. 22 no. 1 (Spring 2002), pp. 17~27.
- 3) 한국전쟁과 6·25전쟁이라는 용어 중 어느 것을 쓸 것인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다. 국제학계에서는 ‘Korean War,’ 일본에서는 ‘朝鮮戰爭’이라고 통용되며 한국의 정치학계와 국제정치학계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가 마련한 편수 지침에 의거한 교과서에서는 6·25전쟁이라고 쓰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도 이 명칭을 통용하고 있다. “6·25전쟁50주년,” 『조선일보』, 2000년 4월 20일. 김학준 교수는 6·25전쟁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어울린다고 주장했다. 김학준, “6·25전쟁에 관한 몇 가지 예비적 토론,”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pp. 26~41. 서동만 교수의 경우 6·25전쟁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한국전쟁은 잘못된 명칭이므로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p. 53. 김명섭 교수도 비슷한 맥락에서 6·25전쟁을 선호했다. 김명섭,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전쟁학회 학술회의 발표문, 2006년 3월 31일, pp. 3~4; 김명섭, “냉전의 종식과 연구의 열전,”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pp. 1~2. Korean War를 직역할 때 우리는 한국전쟁이라하며 북에서는 조선전쟁이라고 하는 등 그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므로 6·25가 보다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6·25라는 통칭에다가 그 성격을 명시하여 용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 역사적 사건을 발생한 날짜 혹은

아래와 같이 서로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도로 지칭(10·26[사건], 4·19)하거나 날짜 혹은 연도를 앞세워 명기하는 식(4·19혁명)은 우리의 전통적 방식이기도 하고 서양에서도 그런 방식(9·11테러)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진보적 진영에서는 6·25가 보수적 명칭이므로 비판하는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양분법에 벗어나는 사례도 많다. 일본의 조총련계에서는 6·25전쟁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6·25전쟁의 도발자는 누구인가?” 『조국』 (2000년 6월).

한편 2000년 6월 24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났으며 미군은 유엔안보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참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2000년 6월 27일 즉각적 담화를 통해 6·25조선전쟁은 미국이 도발한 것이며 이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담화에서 그들이 사용해 오던 용어인 ‘조선전쟁’이나 ‘조국해방전쟁’을 ‘6·25조선전쟁’이라고 호칭한 것은 이채롭다. 『로동신문』, 2000년 6월 28일. 한국전쟁과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전쟁, 영국전쟁, 미국전쟁이라는 말이 가능한데 남의 나라라면 모르되 어느 나라든 자기네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혹은 내전)을 이렇게 부르는 용례는 거의 없다. 조동걸, 『현대한국사학사』 (서울: 나남, 1998), p. 481. 또한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이 전쟁밖에 없지는 않다. 한편 미국 사람들이 이미 1871년 신미양요를 Korean War(한국전쟁)라고 불렀으나, 미국에서 수정주의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던 1970년대 이후 1950년대의 전쟁을 Korean War(한국전쟁)라고 지칭하는 것이 전사학자들이 쓰던 한국갈등(Korean Conflict 혹은 한국위기; the Korean Crisis)이라는 표현 보다 일반화 되었다[한편 미 트루먼은 전쟁 발발 직후 미군을 투입한 뒤에 전쟁이라는 표현 사용을 거부한 채 “유엔에 주도 아래 행해지는 치안 행위”라며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고 한다. David Halberstam, *The Coldest Winter: America and the Korean War* (New York: Hyperion, 2007)]. 그런데 Korean War는 한국정부나 한국인들이 배제된 미국식 용어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남북한 간의 (한국인들끼리의) 전쟁을 연상시키므로 국제전적 성격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같은 평가도 있다. 그렇다면 갈통(Johan Galtung)의 표현대로 War in Korea(한국에서의 전쟁)가 더 포괄적이다.

한편 6·25는 전쟁 전기간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따라서 국제학계의 통칭인 Korean War에서 한국인들끼리 싸운 전쟁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갈통식의 이름에다가 연도를 부기하는 “War in Korea, 1950~1953”으로 하면 어떨까 한다). 1948년 이후 남한 내의 빨치산 투쟁과 1949년 38선 부근의 무력 충돌 등 전쟁은 1948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시각에 입각하면 6·25라는 명칭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김영호 교수는 북이 1949년 전쟁을 원했으며 1950년 1월 30일에 결정되었으므로 6월 25일에 갑자기 발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의,” 강규형 (외), 『청소년을 위한 우리 역사 바로 보기』 (서울: 성신여대 출판부, 2006), p. 234. 박태균 교수는 남에서 주로 쓰였던 ‘6·25사변’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이라고 정의된다.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검색일 2009년 6월 16일). 남에서는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데 비해 북에서는 ‘중대한 일’이라는 의미를 포괄하여 긍정적으로도 쓰인다. 김태훈, “[북녘말] 사변,” 『한겨레』, 2007년 11월 26일, <http://www.hani.co.kr/arti/SERIES/61/252596.html> (검색일 2009년 6월 16일). 조선왕조실록 검색에 의하면 원문 기준으로 태조 1년 이래로 1042건이 검색되는 등 많은 용례가 있다.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2&mTree=0&clsName=&searchType=a&query_ime=%EC%82%AC%EB%B3%80&keyword=%EC%82%AC%EB%B3%80 (검색일 2009년 6월 16일). 중국도 만주사변을 9·18사변으로 호칭하는 등 역사적 사건을 지칭하는 용례가 제법 있다. 또한 일본 군부도 많이 사용했다]과 북(과 예전 공산권)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통칭에 맞서 전쟁 당사국 어느

II. 전쟁의 기원과 성격 규명을 둘러싼 논쟁: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외인론과 내인론

6·25전쟁 관련 자료의 공개 전부터 스탈린이 전쟁 도발을 주도했다(한국전쟁=스탈린의 전쟁)는 전통주의가 서방의 정부와 학계, 언론계를 지배했었다.⁴⁾ 심지어는 스탈린이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전쟁 발발 당시 미국지도자들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38선을 파괴했을 때 ‘직감적으로’ 소련에 의한 대리전이라고 파악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6·25전쟁을 미·소간에 전개되었던 세계적인 대결의 일부로 파악하게 되었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한국전쟁’이란 이름을 선호했다. ‘한국전쟁’이란 무가치한 이름이야말로 “이 전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박태균, 『한국전쟁』(서울: 책과 함께, 2005), pp. 8~9. 그렇지만 한국전쟁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히려 미국식 명칭일 수 있다. 김동춘 교수는 ‘6·25와 조국해방전쟁’으로 정리된 한국전쟁의 공식화된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6·25라는 남한의 전쟁 인식은 전쟁 발발을 기념하는 것으로 전쟁을 개시한 쪽에 대한 맹목적 증오감만을 부추기는 것이며,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북한의 전쟁 인식 역시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의 반역적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양 국가의 전쟁 인식에는 민족, 국민, 인민의 권리는 설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넓은 범위의 한국전쟁이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2·7정치투쟁과 4·3항쟁, 여순사건 등에서 발생한 경찰·우익단체들과 민중들 사이의 폭력적인 충돌과 1948년 가을 이후 좌익이 주도한 유격투쟁에서 시작되었으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를 ‘전면전 시기’라고 따로 지칭했다. 전면전 발발 전후의 시기는 6·25로 지칭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서울: 돌베개, 2000), pp. 19~24, 58.

전인영 교수는 2009년 6월 16일 이완범의 논문발표에 대한 객석에서의 논평에서 6월 25일에 일어났을 뿐 한참을 경과했으므로 6·25는 문제가 있으며 한국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21개국이 참전한 것이므로 한국전쟁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라는 통칭이 달린 민족주의의 표상으로 여겨져 ‘7년전쟁’으로 할 것을 결의해 1970년대 한때 교과서에도 실렸으나 통칭에 밀려 학계에서 퇴장했으므로 ‘3년전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

또한 정용석 교수는 2009년 6월 16일의 약정토론에서 “남침이나 도발이라는 언급은 한번쯤은 들어가야 한다”며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는 이완범의 논문은 외국인인 쓴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객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북한이 1950년 도발하고 21개국이 참전하여 1953년 끝난 전쟁”이라하면 될 것 같지만 이름으로서 너무 기묘로 어떤 식으로든 줄여야 한다. 또한 남북화해 시대에 남침이나 도발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며 명칭에 명기하기보다는 전쟁의 성격에 북의 도발을 언급해 ‘(북이 도발한) 6·25전쟁’으로 처음 언급한 후 괄호 안을 생략하면 어떨까 한다. 또한 최대한 객관에 가까워가려는 학문적 태도와 관점(투철한 국가관)을 투영한 태도가 양립할 수는 없을지 생각하게 한다.

다.⁵⁾ 대략 1980년대 이전까지의 대다수 한국의 학자들도 오랜 기간동안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에 고통을 당한 역사를 연상하면서 6·25전쟁의 기원을 국제적 요인에서 찾았다. 전통주의나 1980년대 이전의 초기 수정주의 학파 모두 국제적 요인을 중시했던 것이다.

6·25전쟁에 관한 한 전통주의 시각은 소련 스탈린(I. V. Stalin)의 공격적이며 팽창주의적인 대외정책이 6·25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김일성이 스탈린의 대리전을 수행했다는 대리전론)한 반면, 초기 수정주의 시각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이 6·25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이승만의 대리전론)한다.⁶⁾ 양측의 논의는 각각의 대리전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73년 3월 30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6615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는 6·25사변일로 되어 있으며 2003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18143호로 일부 개정된 동 규정에도 계속 이 명칭이 쓰였다. 이렇게 합의된 명칭이 아직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6월 25일 이전(국지적인 내전)과 이후(전면전)는 갈등의 수준이 급격히 전환되었으므로 우리들 뇌리 속에 전쟁이라고 기억되는 것은 6월 25일 이후이다. 이점에서는 6월 25일 '미제가 도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쟁의 시간을 지칭하는 객관적 명칭인 6·25전쟁이 남의 진보적 학자들 평가와는 달리 오히려 가치중립적이다. 국제학계에서는 한국전쟁을 선호하지만 위와 같이 6·25전쟁이라는 명칭이 당시 일어났던 갈등의 상당부분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는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어떨까 한다.

미국 등 다른 외국인들이 6·25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6·25전쟁'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1950년 한국에서 일어난 6·25전쟁'이라고 설명해 주면 될 것이므로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2004년 장관의 내부결재에 의거해 6·25전쟁 명칭 사용을 결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과 내용이 그 용어에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 조선전쟁이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렇지만 남의 한국전쟁(혹은 북의 조선전쟁)이나 남북의 6·25전쟁이라는 용어의 경우는 어느 쪽도 사건의 본질과 내용을 그렇게 편향시키고 있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정치학계가 주로 통용하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와 역사학계-경제사학계에서 주로 통용하는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우리 입장에서 6·25전쟁이라는 부르는 통례가 더 나은 명칭이라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 4)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은 정반대의 입장을 개진했으며 이는 초기 수정주의와 연결되었다.
- 5) 6월 25일 미 정부당국자는 "적의 남침책임은 소련에 있다"는 답화를 발표했다. 『한국동란1년지』 ([장소미상]: 대한민국국방부, 1951), p. B11. "Memorandum by the Planning Adviser,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Emmerson)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Dean Rusk)," 8 Nov. 1950,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VII, Korea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p. 1098~1100. 이하에서는 FRUS, 연도, 권호의 순으로 약하여 인용함.

전통주의와 초기 수정주의자들은 전쟁발발 당시 남한이나 북한이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다. 외인론적 해석에 치중한 분석은 남·북한의 정책들이 그들의 동맹국인 미·소의 정책을 수행한다고 믿어 왔다. 김일성(전통주의자)과 이승만(수정주의자)을 행위자로 언급하면서도 이들이 전쟁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배후의 국제적 세력이 전쟁을 주도했음을 강조했던 것이다. 즉 미·소 양 강대국이 남·북한을 지배하였으며 6·25전쟁은 ‘미·소간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다고 보았다.

분단의 문제와 같이 6·25전쟁의 기원과 원인을 다룬 기존 연구는 크게 국제적 요인을 강조한 견해(외인론)와 내전적 요인을 강조한 견해(내인론)로 분류할 수 있다.⁷⁾ 현재 전쟁의 기원과 관련한 중요 쟁점은 전쟁이 내전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쟁적 힘보다는 국제적인 힘에 의해 시작되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외인과 내인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분간해서 보는 것일 뿐 실

6) 수정주의 학자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세력이 소련보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데 대해 소련이 불가피하게 대응하면서 냉전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초기 수정주의의 시조격인 스톤은 이승만의 역할을 비교적 강조하고 있어 외인론적 수정주의에서 다소 이탈해 있다. 이에 비해 콜코 부부(Gabriel and Joyce Kolko)는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여 외인론적 수정주의를 대표하고 있다. 예방전쟁론을 주장한 콜코 부부는 1945년에서 1950년까지의 미국의 대한점령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당시 미국의 정책은 보수적이고 반동주의적 세력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북한의 공격을 기정사실로 보면서 이승만의 고의적 퇴각을 강조했다. 콜코 부부는 이승만이 남한군대에게 급히 후퇴하도록 명령하고 맥아더에게 전문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그들은 미·소 점령군 철수가 38선상에서의 분쟁을 야기시켰고 남북한군이 경쟁으로 치달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점에서 내전적 기원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콜코 부부가 더욱 강조한 것은 미국의 영향이었다. 미국의 NSC 68은 한국전쟁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했던 정책이라고 암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들이 『후르시초프 회고록』이나 다른 공산측 인사들의 증언자료들을 간단히 제외시키면서 ‘소련무지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치명적인 오류이다. 그의 이론은 전통주의자들의 스탈린주도설을 전면 부인하기 위한 일종의 반작용이었다.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4* (New York: Harper & Row, 1972), pp. 600~617.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은 대개 맑스주의에 호의적이다. 사회의 발전을 내재적 발전논리에 따라 바라보는 맑스주의에 입각해 볼 때 6·25전쟁과 같은 갈등도 외적인 충격보다는 사회구성체 자체에 내재해 있는 모순의 폭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부된 것이다. 한국에 분단과 전쟁이 귀결될 때 내인과 외인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었다.⁸⁾

1980년대에는 6·25전쟁의 발발배경을 국제적 상황 설명으로 일단락 지으려는 연구경향에 반발하여 한반도의 내적(domestic)인 요소를 상대적으로 강조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았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한 대표적인 수정주의자들로서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와 존 메릴(John Merrill) 등을 들 수 있다.⁹⁾

1970년대 미국이 6·25전쟁 관련 비밀자료를 공개하자 서방 학계를 중심으로 수정주의가 강화되었다. 초기 수정주의가 6·25전쟁 발발에 미국의 책임을 묻는 외인론적 경향을 견지했음에 비해 커밍스 등의 1980년대 식 수정주의는 남북대립이라는 내전적 상황을 전쟁의 기원으로 강조했으며 미국의 책임은 전쟁 유발(provoke)의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다.

7) 외인론적 경향을 가진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서울: 두레, 1998);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국내적 요인을 분석한 대표적 연구로는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서울: 박영사, 1973);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n 2 volum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1990); Man-Ho Heo, "La Constance de l'Unité Nationale Coreenne: essai d'une nouvelle interprétation de la guerre de Corée" (한민족의 단일성의 지속성: 한국전쟁의 새로운 해석을 위한 한 시론), Ph. D. Thesis, 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1988; 허만호, "한민족의 단일성의 지속성: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한 해석," 『한국정치학회보』 제23집 1호 (1989); 허만호, "6·25 전쟁의 국내적 요인: 국가건설과정에서의 폭력의 심화,"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6.25 전쟁의 재조명: 전쟁의 원인, 수행과정 및 결과, 한국국제정치학회-동북아전략연구소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1999년 6월 17일; 신복룡, "한국전쟁의 기원: 김일성의 개전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3호 (1996) 등이 있다.

8) 초기(1945년)부터 분단과 전쟁의 근원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외인(외세)이다. 외인이 없었다면 전쟁의 전제조건인 분단부터 없었을 것이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일제 이래의 좌우대립은 전쟁의 원인(遠因)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遠因)은 직접적 原因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멀리서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다. 그러나 좌우대립이 있었다고 모두 다 전쟁으로 전화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좌우대립은 전쟁의 직접적 원인(原因)은 아니며 가장 근원적인 원인(原因)은 외인이다. 그런데 아무리 강요한 분할이었지만 좌우대립이 없었다면(좌우가 단합해서 내인을 만들지 않았다면) 분단과 전쟁으로 전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내인과 외인은 분단과 전쟁에 있어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분단이 전쟁으로 치닫는데 있어서 서로 상호상승작용했던 것이다.

9) William Stueck, "Revisionism and the Korean War," *The Journal of Conflict Studies* vol. 22 no. 1 (Spring 2002), pp. 17~27.

커밍스는 전쟁의 원인을 한반도 내에 내재해 있던 사회·경제적 모순에서 야기된 계급투쟁적 요인들과 여러 세력들 간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찾고 있다. 해방 직후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는 등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초강대국이 등장하는 가운데 급격한 속도로 국제정세가 움직이고 있었다. 결국 한국인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양 강대국이 한반도 중앙에서 서로 맞서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좌·우익의 대립,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의 대립 등으로 냉전시대의 문제점들이 한국 내에 과다하게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커밍스는 한국전쟁이 내란과 혁명으로서 시작되었다고 쓰고 있다.¹⁰⁾ 한국전쟁은 식민잔재청산과 사회개혁에 성공한 한 지역(북한)이 그렇지 못한 다른 지역(남한)을 해방시키고자 한 혁명전쟁(내전)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민중의 통일자주국가 수립 열망이 미국의 봉쇄적 세계전략 속에서 좌절되면서, 처음에는 남한 내에서의 투쟁으로 1949년 이후로는 남북직접대결에 의한 갈등으로 이어진 내전(civil war)으로 파악했다. 그렇지만 커밍스가 외세의 분단 책임을 한민족에게 전가시키는 내인론자는 아니다. 그는 한국전쟁의 원초적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책임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커밍스는 한국전쟁을 내전이자 혁명전으로 보지만 한국전쟁의 기원을 외부로부터의 개입에서 구하고 있으므로 내인만을 유일한 원인으로 강조하는 그런 식의 내인론자는 아니다.¹¹⁾ 전통주의자들은 한국전쟁이 국제전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데 비

10)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 xxi. 그의 혁명적 내전설은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p. xviii, pp. 772에도 나온다.

11) 이원범, “한국전쟁연구의 국내적 동향: 그 연구사적 검토,”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225~227(한편 필자는 위의 글 p. 227의 각주 57에서 “커밍스는 전쟁이 내인에 의해 일어났다고 주장한 곳은 없다”고 단정했는데, 이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해 커밍스는 한국전쟁이 내란으로 시작되었음을 강조했다(한편 콜코 등의 초기 수정주의자들도 국제적 환경에 비중을 두었다). 커밍스는 전쟁이 발발할 때 이미 강대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커밍스는 내전이 있게 한 기원으로 미·소의 분할점령을 지적하므로, 전쟁의 보다 근본적이며 원초적 요인은 내인이 아닌 국제적 요인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커밍스는 국제적 요인의 틀에서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전쟁 기원론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커밍스는 스탈린 주도설을 주창했던 전통주의자들이 내인에 대해 소홀히 했던 것에 주목했을 뿐 한국전쟁이 오로지 내전의 측면만으로 가지고 있는 시종일관한 내전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커밍스는 내전은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나며 먼저 한국을 아무 생각 없이 갈라놓고 식민지 정부기구를 재건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¹²⁾ 그렇지만 그는 한국전쟁이 내전임을 명백히 주장하기는 했으며¹³⁾ 내전이었지만 한국인들끼리의 단순한 내부충돌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¹⁴⁾

한편 전쟁의 구체적 발발과 관련하여 커밍스는 세 가지 모자이크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1)전면남침설, (2)남침유도설, (3)전면북침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는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모자이크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내 롤백주의자들과 대만의 장개석, 남한의 이승만정권(특히 이범석계) 삼자간의 음모에 의한 소규모 선제공격 가능성과 또는 미국과 남한이, 혹은 미국만이라도 북한의 남침을 사전에 알면서 기다렸고, 북한의 남침을 롤백으로 전환시킬 호기로 삼았을 가능성을 치밀하게 추적한다. 이러한 커밍스의 주장을 적극적 유도설이 아니라 포괄적 유도설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1948~1949년을 거치며 소극적 봉쇄에서 적극적 봉쇄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군사력 투입에 의한

12) 브루스 커밍스, 『한국현대사』, 김동노 (외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 333.

13) 위의 책, pp. 369, p. 3.

14) 위의 책, pp. 417~418.

롤백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남침은 공산세력과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나 터키, 대만에서의 경우와 차별성이 없으며,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였다고 해도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포석을 미리 깔아 놓은 상태에서 사건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다시 말해 실제로 사건이 터지더라도 놀랄 일이거나 별 문제될 것이 없었고), 사건이 실제로 터지자 기본전략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커밍스는 이것을 애치슨의 전형적인 외교스타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애치슨라인은 중국대륙의 포기, 남한에 대한 지원, 중국우선주의자들의 무마와 호전적 이승만 제어라는 다중적 목표를 지닌 것이라고 커밍스는 해석했다.¹⁵⁾

자신을 신수정주의로 규정한 메릴은 ‘내인론’과 ‘외인론’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한국전쟁의 기원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릴은 과거 수정주의와 전통주의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메우려는 노력했다. 그는 전쟁의 기원을 지나치게 내부적 요인에서만 찾는 내인론이나 국제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외인론 모두 그 자체만으로 결코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메릴은 남한에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빈발하였던 빨치산과 국군과의 비정규전적 내전에 인민군이 개입함으로써 내전적 상황(internal warfare)이 끝났다고 주장한다.¹⁶⁾ 내전론자로 평가되는 메릴도 내쟁적 요소와 국제적 요소를 모두 전쟁원인으로 고려하면서 남북한간 전쟁전의 갈등을 고려해야 전쟁의 기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외인론자들의 주장이 주류였던 학계에서 주장하였을 뿐이다.¹⁷⁾ 내전적 요

15)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chapter 13.

16)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New Yo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이러한 남쪽에 한정된 ‘내’의 범위에 비하여 시몬스식 내전(civil war) 개념에서 내전은 남북간의 내전이다. Robert R. 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Peking, P'yongyang, Moscow and the Politics of the Korean Civil War*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소와 국제적 요소를 모두 전쟁원인으로 고려하면서 남북한간의 전쟁전의 갈등을 고려해야만 전쟁의 기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이와 같이 6·25전쟁은 내전적 성격과 국제전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국제냉전의 복합 속에서 일어난 국제적 내전이라는 일본 도쿄교육대학의 국제적 수정주의 학자 나가이 요노스케(永井陽之助)의 주장도 특기할 만하다.¹⁹⁾

6·25전쟁의 내전적 요소를 중시하는 수정주의자들은 1950년 6월 이후 6·25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상황보다 그 이전에 6·25전쟁이 배태되었던 상황적 조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커밍스는 1950년 6월 25일은 한국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1945년 해방이후부터 시작되었던 갈등에 대단원(denouement)의 막이 이루어진 계기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²⁰⁾

이렇듯 6·25전쟁에 내전적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

17)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 Origins of the War* (Newark, Delaware: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p. 54.

18) John R. Merrill, *Korea: The Peninsula Origins of the War* (Newark, Delaware: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p. 54; 존 메릴, "한국전쟁의 기원," 『시사논평』 제32호 (1988년 12월); "한국전쟁의 기원: 대답없는 질문," 김철범-제임스 매트레이 (편), 『한국과 냉전: 분단과 파괴의 구축』 (서울: 평민사, 1991).

19) Yonosuke Nagai, "The Korean War: An Interpretative Essay," *The Japanese Journal of American Studies* Vol. 1 (1981). 또한 오꼬노기 마사오 교수도 한국문제의 '국제화'와 국제문제의 '국내화'의 과정을 거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小此木政夫, 『韓國戰爭: 美國의 介入過政』, 現代史研究室 (역) (서울: 청계연구소, 1986), p. 404. 피터 로우도 한반도의 내전에 영향을 준 '냉전 국제정치'의 요소를 중시했다. Peter Low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ondon: Longman, 1986). 스투엑도 내전에서 시작되어 국제전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국제적 내전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p. 10~13. 이호재 교수 등도 미소냉전과 남북냉전을 복합시켜 보고자 한다. 이완범, "한국전쟁연구의 국내적 동향: 그 연구사적 검토,"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1991), pp. 231~234.

20) Bruce Cumings, "Introduction: The Course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53,"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 41. 1950년 6월 이전에 이미 10만여 명의 인명이 손실된 한반도에서의 상황에 주안점을 둔 메릴은 전쟁은 1948년 초부터 1950년까지 점차 고조-에스컬레이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개입함으로써 국제전으로 전환되었던 데다가 전쟁의 기원 면에서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 분단이 배경으로 존재했고 발발국면에 외인이 작용했으므로 6·25전쟁을 내전으로만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다 세밀하게 본다면 내전이 격화되어 6·25로 상승된 측면도 있지만 6·25 전쟁 직전 정찰시 발생한 소규모의 충돌이 아닌 대규모의 국경 분쟁이 1949년 12월부터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경충동이 6·25로 직접 비화된 것은 아니다. 스탈린이 1949년 말 이후 대규모 국경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일성을 통제했으므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²¹⁾ 당시 북의 대규모 도발도 소련이 조종한 것이었다. 또한 1949년 9월공세의 실패이후 북의 유격투쟁 전략은 북로당 빨치산 출신들이 주장했던 국지전 전략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대규모 정규군 수준의 유격대를 남파했으나 대부분 강원도 태백산 지구에서 한국군의 포위망을 뚫지 못해 실패했다.²²⁾ 게다가 북이 예상했던 남한 내의 자생적 유격대 투쟁 및 남로당원 봉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므로 전쟁은 외부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이 1950년 1월 30일 김일성의 남침에 대해 동의했으므로 전쟁이 일어났다. 만약 동의하지 않았다면 국경충돌에 그쳤을 뿐 대량살상의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내전적 상황은 전면전 발발에 있어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쟁의 직접적 발발 원인은 북방 3국 소련·중국·북한 국제공산주의자들의 공모에 있었으며 남북간 갈등은 부차적 변수였다. 만약 분할점령이 없었다면 좌우간의 갈등은 있었을지라도 전면전은 물론 내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쟁의 근본적 책임은 미-소에게 있다. 따라서 국제적 규모의 갈등과 관련해 볼 때 내전적 상황은 중요한 원인(原因)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배경일 뿐이다. 이렇게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주도에 의한 전쟁이었으므로 6·25전쟁은 ‘국제전적 내전’(나가이의 이론)이 아니라 ‘내전적 상황을 이

21) 이원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서울: 백산서당, 2000), pp. 69~71.

22)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서울: 돌베개, 2006), pp. 474~475.

용한 국제전’(혹은 ‘내전을 가장한 복합형 전쟁’)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한에서의 내전상황에 북한과 소련, 중국이 개입해 결국 남북 간의 전면적인 정규전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미-소간의 세계적 대립인 냉전체제가 한반도에도 침투하여 내전적 상황까지 상승된 국면에서 국제적 전쟁으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외세의 개입이 필수적이었다. 처음에는 내전으로 출발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분단이 그 근본적 배경이었고 스탈린의 승인이라는 외인이 발발의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복합적인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내전과 국제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전쟁이었고 미국과 중국의 개입으로 국제전적인 성격이 강화되었으므로 국제전적 요소는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종합적으로는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³⁾

한편 북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다.²⁴⁾ 처음부터 미국이 개입하여 조국해방전쟁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제와 조선민중 간 대립이 전쟁으로 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을 기념하여 허종호가 전영률, 강근조, 리정인, 리준항 등과 분담하여 쓴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전3권의 1편 10쪽의 서두에서 “조선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었다.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고 적고 있다. 또한 같은 책 10쪽과 88쪽에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었다고 적혀 있다. “미제가 강점한 빼앗긴 땅을 도로 찾는 정의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23) 김학준 교수는 한국전쟁에 민족 내전과 국제 냉전이 중첩되어 있다고 규정했다. 김학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의 정치경제사,”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DMZ 생태평화 국제학술회의, 2006년 5월 2일 발표논문, p. 5.

24) 류상영,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과 성격규정,”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서울: 태암, 1990); 정해구,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안병우 (외), 『북한의 한국사 인식』, 2 (서울: 한길사, 1990).

1989년 3월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발행된 교지에 8·25전쟁은 “미제의 불의의 침략에 항전하여 조국의 해방과 통일,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한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구절이 실려서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²⁵⁾

한편 강정구 교수는 일찍이 1990년 민중이 바라보는 한국전쟁과 민중이 겪었던 한국전쟁에 걸맞는 설명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조국해방전쟁이자 혁명전쟁이라는 북의 규정을 소개함과 동시에 당시의 주류적 인식을 비판했다.²⁶⁾ 그는 2005년 7월 27일 ‘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라고 단정했다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다.²⁷⁾ 구체적으로 그의 글에는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이였다(물론 외세가 기원한 내전). 곧 당시 외국군이 한반도에 없었기에 집안싸움이였다. 곧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였다”²⁸⁾는 표현이 나온다. 통일내전이라는 성격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커

25) 민족사학회 (편), “미제침략백년사,” 『민주조선: 조선대학교 교지』, 창간호 (1989년 3월); “사설: 비뚤어진 현대사 시각: 반이성적인 「민족해방전쟁론」,” 『중앙일보』, 1989년 4월 15일; “6·25는 민족해방전: 조선대교지 북한주장 그대로 실은 경위 조사,” 『동아일보』, 1989년 4월 14일.

26) 강정구,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한 재인식: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중심으로,” 『현대사회』 제10권 1호 (1990년 봄-여름 합본호), pp. 3~18.

27) 2006년 2월 8일 동국대는 그를 직위해제했고 2009년 6월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음).

28) 강정구,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년 7월 27일, <http://www.dailyseop.com/data/article/29000/0000028303.aspx> (검색일 2006년 2월 16일). 그런데 Robert Simmons, “한국전쟁”(Korean ‘Civil War’), 프랭크 볼드윈 (편), 『한국현대사, 1945~1975』 (Without Parallel) (서울: 사계절, 1984); 로버트 시몬스, 『한국내전』, 기광서 (역) (서울: 열사람, 1988), p. 201에 의하면 “북한은 민족통일을 위해 투쟁하였다”고 나온다. 송광성 교수는 2005년 10월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고 말한 사람은 세상에 많다”며 “와다 하루키도 그랬고 이승만의 북진통일 주장과 김일성의 국토완정 주장도 그렇다. 한국전쟁을 김일성은 조국해방전쟁이라 했고 이승만은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했다”며 송 교수는 “한국전쟁은 북한 인민군이 통일을 하려고 남침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송광성, “이재봉의 분단과 전쟁에 관한 논평,”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필화 사건 토론회 발표문, 2005년 10월 15일,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51017/20051017004900.html>. 그런데 이승만이 국토를 수복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했으며 북한동포들을 赤狗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자고 주장했지만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불렀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밍스의 주장이 인용되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이 없었다면 민족의 분단과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곧, 커밍스가 논증한 대로 분단과 전쟁의 기원은 바로 미국에 귀착된다”²⁹⁾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전쟁은 조기에 끝났을 것이며 희생도 줄었을 것이라고 강정구 교수는 주장한다.³⁰⁾ 그러나 애초에 전쟁을 도발한 것은 북이었으므로 북이 도발하지 않았다면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국제전으로의 비화와 막대한 희생도 1차적으로는 전쟁을 시작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한편 2006년 3월 10일 공판에서 강 교수는 6·25는 통일전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쟁의 성격은 전쟁 주체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전쟁 당시 주체들이 모두 통일을 목적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전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³¹⁾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인 2006년 11월 20일 캄보디아 방문 중 동포간담회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식민 지배를 받고 내전도 치르고 시끄럽게 살아왔는데 대통령이 돼서 보니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언론들은 ‘6·25=내전’이라는 인식은 좌파적 시각이라면서 즉각 비판했다.³²⁾ 그러자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11월 21일 “동족간에 전쟁을 치렀다는 점에서 캄보디아 역사의 공통점을 얘기한

29) 강정구,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 『데일리 서프라이즈』, <http://www.dailyseop.com/data/article/29000/0000028303.aspx> (검색일 2006년 2월 16일).

30)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이미 시몬스가 했던 말이다. 시몬스는 미국의 개입에 대해 “미국이 한국내전에 개입함으로써 미국과 한국(남북한) 모두에게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신속하고도 상대적으로 덜 유혈적인 통일의 길이 있었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그것이 그만 대량 참사로 전환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로버트 시몬스, 『한국내전』, 기광서 (역) (서울: 열사람, 1988), p. 266. 한편 김일성은 1950년 7월 16일 평양방송을 통한 연설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內政에 개입하지 않고 무장 침략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끝마치고 이미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고 단언했다. 앞의 책, p. 182.

31) 양정아, “강정구 공판 “분단은 美 주도적 책임, 소련은 보조” 주장 “외세개입 없었으면 南 사회주의 확산,” 『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0100&num=19738>.

32) “[사설] 6·25에 대한 대통령의 비뚤어진 역사관,” 『중앙일보』 2006년 11월 22일; 김영호, “6·25가 내전이러니” 『조선일보』 2006년 11월 22일.

것”이라며 “이를 좌파적 용어로 보도하는 것은 아주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³³⁾

이러한 내전론에 대해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2009년 6월 16일 북한연구소-북한학회 주최 2009년도 전반기 학술회의에서 “6·25 전후(前後)사의 재인식”을 발표하면서 내전이라는 평가는 북의 도발을 희석시킨다고 주장했다.³⁴⁾

한편 북에서는 미국이 도발했다고 주장하므로 통일전쟁이라는 말은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말은 미국이 북을 침공했다던가 한국을 강점하려고 시도했을 경우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미국이 북의 침공을 유도한 측면은 있을지 몰라도 전면 침공하지는 않았으며 미국은 이미 1949년 6월에 철군했고³⁵⁾ 강점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므로 북의 조국해방전쟁 규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이 철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강점 중이었다고 북이 평가했으며 맥아더 등이 이승만과 공모하여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정치 속에 던져진 한국현대사를 연구할 때는 미·소 냉전과 한반도의 내부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 분단이 일단 미·소의 분할점령에서 연유된 것이며 전쟁 국면에서도 소련의 지원을 통한 북한의 군사력 증가와 그 군사력에 의한 남침, 미국과 중공의 개입이라는 요소가 주목되므로 국제정치적 맥락을 우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매트레이(James I. Matray)는 “1950년 6월의 전쟁발발이 내부 요인에 의한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해방정국에서 내란에 필요한

33) “韓·캄보디아 문화교류 활성화 기대,” 『서울신문』 2006년 11월 22일.

34) 한편 내전론은 국제전론보다 김일성의 책임을 부각하며 소련의 문서공개로 김일성의 책임이 더 부각되면서 김일성을 영웅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냉전시대 서방세계의 지배적 기설인 스탈린 주도설은 김일성의 책임을 행동대장 급으로 경감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보수진영 내부의 2009년 6월 16일자 논의에 대해 이완범은 내전과 국제전 양면을 가진 복합전적인 인식으로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김일성을 영웅시하는 논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35) 따라서 강정구 교수도 해방전쟁이라는 말보다 통일전쟁과 내전이라는 성격 규정을 사용한다.

조건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해 국제적 요인이 근원에 자리잡고 있음을 강조했다.³⁶⁾ 즉 국제환경이 김일성의 남침을 가능케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환경과 국내정치는 분단 형성과 전쟁 발발 국면에서 서로 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적인 관계로 결합되어 있었다.

미국 지원의 남쪽에는 자유주의·자본주의체제에 기반한 정권과 소련 지원의 북쪽에는 사회주의체제에 기반한 정권이 각각 수립되었고 양국 군대가 철수한 후 2년도 안되어서 6·25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은 당연히 자본주의·사회주의 체제 간 대립의 첨예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원래 전세계적인(global)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은 열전도 평화도 아닌 새로운 국제사회현상 ‘냉전’(the Cold War)이었다. 강대국(미·소) 간에는 직접적인 열전(hot war)이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냉전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냉전은 종종 국지적(local) 차원인 제3세계 동맹국 사이의 열전을 야기했다.³⁷⁾ 그 대표적인 예가 한반도이다.

그런데 6·25전쟁의 국제적 요인은 미·소만으로 해명될 수 있을까? 물론 당시 한국정치를 규정한 요인들 중에서 미·소 양국이 가장 중요한 인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도 주요한 국제적 요인의 한 축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발발에 관한 한 미국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미·소·중·일이라는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6·25전쟁의 국제적 요인을 다 차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소련방이 몰락하면서 소련 측 자료가 전부는 아니지만 비교적 체계적으로 공개되자 기존의 전통주의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36) 제임스 매트레이, “일종의 내전: 한국전쟁의 국제적 기원,” 김철범-제임스 매트레이 (편), 『한국과 냉전』 (서울: 평민사, 1991), pp. 57~58.

37) Fred Halliday, *The Making of the Second Cold War* (London: Verso, 1983), p. 7. 냉전이라는 용어보다 냉평화(Cold Peace)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전통주의에다 고증을 더하여 “orthodoxy plus archives”라고 칭해지는 후
기수정주의(post-revisionism)가 하나의 대안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잡
았다. 1970년의 『후르시초프회고록』,³⁸⁾ 1980~90년대에 이어진 소련 거주
공산권 인사들의 증언에다가 최근에 공개된 소련문서 등은 6·25전쟁의
진상에 더욱 가까운 분석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전통주의자들의 입장을
보완시켜 주었다. 러시아 엘친 대통령은 대한민국 김영삼 대통령의 모스
크바 방문시(1994년 6월 1일부터 6월 4일) 6·25전쟁에 관련된 비밀문서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와 러시아외무부외교정책문서보관소 소장
문서)를 제공했다. 현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에서 『한국전쟁
(1950.6.25) 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 『한국전쟁(1950.6.25)
관련 러시아문서: 보충문헌, 1949~53』이라는 표제 하에 소장하고 있는
데 원본은 216건 548페이지 분량이며 번역본과 합치면 1,100페이지 가량
된다.³⁹⁾ 그런데 이 자료들은 러시아가 임의로 선별하여 제공한 것⁴⁰⁾들
이므로 전쟁의 전체상을 객관적으로 그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6·
25전쟁 발발 전후인 1950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원문서(러시
아 외무성 관계자가 작성한 것을 근거로 대한민국 외무부가 번역한 요

38) 1970년대 전에 *On the Korean War, 1950~53, and the Armistice Negotiation*이라는 제목의 소련 자료
집이 있었다. 이는 미국과 전쟁중인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지원문제를 중국, 월맹측 관계관과 협의
하려는 소련관계관들에게 배경정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소련 외무성이 6·25전쟁에의 소련과 중국의
개입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다.

39) 다음 자료집은 주요 자료를 일지와 내용구성 형식으로 요약한 것이다.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
교문서 (1949.1~1953.8)』 (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1994);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비밀 외교문서』
(서울: 서울신문사, 1995). 그런데 이들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 기본문헌과 보충문헌에 나와 있
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서울신문의 연재물(“6·25내막 모스크바 새증언”; 1995년 5~6월에 연재)은 러
시아 외교아카데미 부학장 바자노프 부처가 제공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저서에는 이들 문서들보다
김영삼대통령 제공본에는 없는 새로운 문서가 첨가되어 있다.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
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김광린 (역) (서울: 열림, 1998); Evgeniy p. Bajanov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Based on Secret Soviet Archives,” Completely Rewritten and Edited by Dr. & Mrs. Tong-chin Rhee.

40) 기광서 교수는 열린 제공 문서의 러시아아카이브 소재 원문서의 문서번호를 추적한 결과 1950년 6월
전후의 민감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공되었으며 불리한 부분을 빼버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
다. “기광서 교수와의 인터뷰,” 2000년 6월 10일.

약과 내용구성에는 6월 23일~30일)는 빠져있다. 소련문서가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날조하려고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은폐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사료비판이 필요하다.⁴¹⁾ 러시아는 6·25전쟁의 발발에 있어 김일성의 개전의지만을 부각시켜 그 책임을 김일성에게만 전가시키려고 선별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만들게 한다. 또한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 등의 주도로 구소련 시대의 비밀문서 발굴작업이 행해 졌는데 이 중 6·25전쟁 관계 자료는 한국 외무부 소장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 상당 부문이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등에 실려있다.⁴²⁾ 웨더스비가 수집한 자료는 406건 1,148페이지 분량이다.⁴³⁾ 이들 러

41) 한편 일본의 産経新聞社와 영국의 텔레비전국은 1995년 여름에 1950년 6월 26일 자하로프 참모장에게 보내는 슈티코프의 보고서를 입수했다.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6~7 (Winter 1995/1996), pp. 39-40. 『正論』은 1950년 7월 15일, 19일 혹은 20일, 8월 28일의 슈티코프 보고, 10월 7일자 마트베예프(자하로프의 가명) 보고 등 모두 4점의 신자료를 발굴해서 발표했다. 『正論』(東京: 産経新聞社, 1995년 11월~12월).

42) 이에 기반한 연구물들은 1993년 이후 다음과 같이 우드로 윌슨 센터 등에서 간행되었다. Kathryn Weathersby,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Working Paper No. 8, Washington, D. 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1993;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New Documentary Evidenc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2, No. 4 (Winter 1993), pp. 425~458;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5 (Spring 1995), pp. 1~9;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6~7 (Winter 1995/1996), pp. 30-84; Vladislav Zubok, "To Hell with Yalta! Stalin Opts for a New Status Quo,"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6~7 (Winter 1996/1997), pp. 24~27; Alexandre Y.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6~7 (Winter 1995/1996), pp. 94~119; "Communist War Coalition Formation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97; SHEN Zhihu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 of Mao's 2 October 1950 Message to Stalin on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A Chinese Scholar's Reply," translated by CHEN Jia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8~9 (Winter 1996/1997), pp. 237~242; Dieter Heinz, "Stalin, Mao, Kim, and Korean War Origins, 1950: A Russian Documentary Discrepancy,"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8~9 (Winter 1996/1997), p. 240.

43) 와다 하루끼, 『한국전쟁』, 서동만 (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p. 354. 이외에 『서울신문』도 950여 건, 3천 페이지를 입수했다고 하며 1995년 5월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6·25전쟁 관련 특집을 연재했다.

시아 자료는 이상 제기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매우 귀중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외부개입자 중 주로 미·소가 자료를 공개했고 중국은 공식자료(毛澤東의 전문 중심)와 회고담 등을 선택적이고 비체계적으로 공개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역시 毛澤東이 외국에 보낸 전문 등인데,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에서 1987~1990년에 4책으로 편집·간행한 『建國以來毛澤東文稿』 중 6·25전쟁 관련 부분이 “毛澤東의 전쟁지휘 전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조선』(1991년 8월)에 번역되었다.⁴⁴⁾ 중국은 자료를 현재의 입장에서 개작하기도 하므로 인용할 때에는 다른 사료와의 교차 비교를 통한 사료비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중국의 공식전사는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가 1987년 공간한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이다. 이 책은 『월간조선』(1991년 8월)에 소개되었으며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서 번역해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史』라는 이름으로 세경사에서 1991년에 번역되었다.⁴⁵⁾ 이러한 중국 문서와 증언에 주로 기반한 연구가 비교적 축적되었다.⁴⁶⁾

한편 북한은 공식 문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전에

44) 영문으로는 Li Xiaobing, Wang Xi, and Chen Jian, “Mao’s Dispatch of Chinese Troops to Korea: Forty-Six Telegrams, July~October 1950,” *Chinese Historians*, Vol. 5, No. 1 (Spring 1992), pp. 63~86;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229~291에 다른 문서들과 함께 번역되었다.

45) 한편 紫成文-趙勇田, 『중국이 본 한국전쟁: 板門店談判』, 尹永茂 (역) (서울: 한백사, 1991)도 특기할 만한 중국의 자료이다.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으로 참전했던 洪學智의 회고록 『抗美援朝戰爭回憶』 再版 (北京: 解放軍 文藝出版社, 1991)을 번역한 『중국이 본 한국전쟁: 인해전술의 전쟁기록』, 홍인표 (역) (서울: 고려원, 1992)도 있다. 한편 중국 외교관 伍修權이 1983년 8월부터 5회에 걸쳐 北京에서 발행하는 격주간지 『世界知識』 (제16호~제20호)에 “在外交部八年的經歷 (1950.1~1958.10)”이란 제목으로 연재한 것을 “伍修權의 外交回顧錄”으로 『中蘇研究』 제8권 제1호, 제2호 (1984년 봄, 여름) 두 호에 걸쳐 번역·게재되었다. 中國 공산당 중앙학교 산하 당사연구소 연구원 姚旭이 연구소 기관지 『黨史研究』에 1980년에 실은 “抗美援朝的英明決策”을 당시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이홍영 교수의 제공으로 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 현명한 정책: 중국 인민지원군이 출국하여 참전한 30주년을 기념하며,” 『中蘇研究』 제8권 4호 (1984년 겨울)에 번역되었다.

대한 확증은 불가능하지만 남한⁴⁷⁾·미·소·중의 자료와 미국 국립문서 보관소에 소장된 북한 노획문서⁴⁸⁾만을 놓고도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남한·미국·소련·중국·일본 등 관련국의 다국

46)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History Revisited," *China Studies Quarterly* No. 121 (March 1990), pp. 94~115; 자이 지 하이, "中國의 韓國 戰爭 參戰 決定," 김철범 (편), 『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혀진 韓國 戰爭의 진상』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160~196; 자이 지 하이, "中國의 韓國戰爭 參戰 決定," 김철범·제임스 매트레이 (편), 『韓國과 냉전』 (서울: 평민사, 1991), pp. 235~264;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History Revisited," Kim Chull Baum and James I. Matray, eds., *Korea and Cold War: Division, Destruction, and Disarmament* (Claremont, California: Regina, 1993), pp. 141~166; 朱建榮, 『毛澤東의朝鮮戰爭: 中國가鴨綠江을渡るまで』 (東京: 岩波書店, 1991, 2004년 개정판); 주지안룡(朱建榮),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각수(역) (서울: 역사넷, 2005); 平松茂雄, 『中國と朝鮮戰爭』 (東京: 勁草書房, 1988); 황인모(역), 『중공과 한국전쟁』 (서울: 병학사, 1989);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조성훈, "마오쩌둥의 군사사상이 한국전쟁에 미친 영향," 『해외한국학평론』2(서울: 일조각, 2001), pp. 103~129; Chae-Jin Lee and Doo-Bok Park, "China and the Korean War,"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Stanford: The Hoover Institute, 1996), pp. 7~58; SHEN Zhihu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 of Mao's 2 October 1950 Message to Stalin on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A Chinese Scholar's Reply," translated by CHEN Jia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8~9 (Winter 1996/1997); 沈志華, 『毛澤東-斯大林 与 朝鮮戰爭』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3); 沈志華, "蘇聯과 韓國戰爭: 러시아 비밀 해제 당안 속의 역사 진상," 『現代北韓研究』 3 (2000), pp. 11~91; 楊奎松, "中國의 조선 출병 시말," 『現代北韓研究』 3 (2000), pp. 93~148; 박두복, "中國의 韓國戰爭 介入원인," 韓國戰爭研究會 (편), 『탈냉전시대 韓國戰爭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pp. 143~172; 朴斗福, 『中共參加韓戰原因之研究』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5); 이병주, "중국의 한국전개입과 그 영향," 한국국제정치학회 (편),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 (서울: 국제정치학회, 1990); 송재경, "중국의 한국전 개입의 내정적(內政的) 요인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91; Lawrence Stephen Weiss *Storm and the Cradle: the Korean War and the Earl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53*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은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의 연구 수준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킨 것이다. 화이팅은 中國 參戰의 배경을 외부의 안보적 동기에서 구했는데, 陳兼과 張曙光 등은 모두 中國參戰의 中國 국내정치적 연원과 파급효과 등에 주목하고 있다.

47) 남한의 경우는 자료집 등을 통해 제한된 양의 비밀자료도 공개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는 거의 없고 작전관계 자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미·소에 비해 그 질적 수준이 다소 낮은 편이다.

자료를 다층적으로 교차비교하는 방법이 후기수정주의적 조류의 하나이다.

III. 개전의 주도자

개전 당시 누가 발발을 주도했는지도 전쟁의 성격을 규명하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냉전이 해체되고 소련의 자료가 부분적으로 공개된 상황에서 6·25전쟁 개전의 주도자를 둘러싼 논쟁 중에서 이승만-맥아더-蔣介石 등의 음모설⁴⁹⁾과 같은 '남측 주도설' (혹은 북침설⁵⁰⁾)은 설득력을

48) 북한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노획한 북한 문서"에서 그 편린을 볼 수 있으나 내부적인 정책결정 문서 등은 거의 없다. 13만 여장의 노획문서를 검색한 일본 언론인 하기와라 료는 조선전쟁관련 자료집을 일본에서 간행했다. 萩原 遼, 『朝鮮戦争』(東京: 文藝春秋, 1993).

49) 미국 언론인 스톤(I. F. Stone)은 이승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스톤의 입장은 "전쟁의 발발에 대해 미국이 전혀 예상 못했다"라는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을 의심했다. 미국이나 남한이 전쟁을 일으킬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남한이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침략하지 못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침묵의 음모'라는 것이다. 북한의 공격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침묵의 음모'에 가담한 사람은 이승만·맥아더·덜레스 그리고 蔣介石이었으며 각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고 이 음모에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 이승만이었다고 가정한다. I. F. Stone,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52). 한편 하기와라는 미국의 군부-국무세력들이 김일성의 남침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유도하면서 방치한 음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기와라 료, 『한국전쟁』, 최태순 (역) (서울: 한국논단, 1995), pp. 256~257. 이 둘 가설은 증명될 수 없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했다.

50) 1950년 6월 26일 슈티코프가 보낸 전문에 의하면 6월 24일 전투의 모든 준비 조치가 완성되어 당일로 각 사단장에게 D-데이와 H-아워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는 남한이 38선을 침범해 군사공격을 단행하였기에(had provoked a military attack) 반격(counterattack)을 행한다는 것이었다. "Top Secret Report on Military Situation by Shtykov to Comrade Zakharov," 26 June 1950, Collection of BBC, i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6~7 (Winter 1995/1996), pp. 39~40; 沈志華, "소련과 한국전쟁: 러시아 비밀해제 당안 속의 역사 진상," 『현대북한연구』 3 (2000), pp. 32~33. 그러나 같은 슈티코프의 1950년 6월 20일자 전문에 의하면 20일 오후 11시경 남한정부가 북한에 대해 공격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첩보가 북한측에 오후 8시경 입수되었다고 하는데 슈티코프조차도 동 첩보가 공개문서인 관계로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한국전 문서요약," 1950년 6월 20일, p. 28,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 (1949. 1~1953. 8)』(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1994).

상실했으며 ‘북측 주도설’ (북의 계획적 남침)이 정설로 되었다.⁵¹⁾ 남침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북한의 역할은 완전히 무시하는 ‘스탈린단독주도설’ (대리전설, 김일성은 완전한 하수인; 달린과 같은 구미의 전통주의 학자)과 ‘김일성(과 박헌영)단독주도설’ (시몬스 등의 내전설⁵²⁾)을 각각 국제전설과 내전설을 대표하는 양극단으로 위치시킬 때 스탈린이 주도해 한반도 내부 상황을 이용했다는 ‘스탈린주도김일성보조역할설’ (김영호⁵³⁾), 김일성과 스탈린이 공동 주도했다는 ‘김일성·스탈린공동주도설’ (서주석⁵⁴⁾), 김일성이 주도한 전쟁을 스탈린이 정신적·물적으로 지원했다는 ‘김일성주도스탈린지원설’ (김학준, 신복룡, 박명림⁵⁵⁾)

51) 하기와라 료는 노획문서를 통해 남침설을 다음과 같이 증명했다. 북한군은 1949년 12월 15일부터 1950년 5월 15일에 걸친 ‘동기전투훈련’에 이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기전투문화훈련’을 예정했는데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닌 남침준비훈련이며 이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무력남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기와라 료, 『한국전쟁』, 최태순 (역) (서울: 한국논단, 1995), pp. 152~153. 또한 북한 제6사단 문화부가 6월 13일자로 작성한 12쪽 분량의 절대비밀문서 ‘전시 정치문화사업’에는 남침에 이르는 5단계가 세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위의 책, pp. 174~175) 6사단 13연대(통상 657부대)의 지령철에는 17일부터 24일까지 거의 매일 지령이 하달되었고 23일에는 상급에서 전투명령이 내리는 것을 기다릴 뿐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위의 책, p. 185. 또한 13연대의 구두전투명령은 6월 23일 오후 6시 35분에 내려졌다. 위의 책, p. 186. 따라서 한국전쟁은 25일보다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하기와라는 주장했다. 맥아더기념관에서 발견된 6사단 병사의 일기의 영역본에 의하면 6월 25일 오전 4시 40분 포사격을 준비했으며 5시 25분에 공격이 개시되었고 6시 40분에 개성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위의 책, p. 190. 또한 북한 조국전선의 평화통일안(6월 7일 발표)을 전달하기 위해 38선에 도착한 연락원이 체포되었는데 이에 대해 하기와라는 체포를 유도하기 위해 체포가 뻔한데도 고의적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위의 책, p. 203. 2사단 병사의 노트에 의하면 6월 25일 오전부터 상부의 명령으로 38도선 전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적의 불의의 침공으로 38도선 전투가 개시되었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하기와라는 남침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위의 책, pp. 216~217. 제4사단의 경우 일찍이 미국의 남침증빙용 선전자료로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활용한 ‘전투명령 No. 1’ (제4사단장 이권무가 6월 23일 옥계리에 내 보냄)가 있다. 위의 책, p. 227. 북은 남침을 1년여에 걸쳐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7개의 인민군 사단 중에서 1, 2, 3, 4, 6, 7의 6개 사단이 6월 23일에는 38선 근처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위의 책, pp. 227~229.

52) Robert R. 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London: The Free Press, 1975); 로버트 시몬스, 『한국내전』, 기광서 (역) (서울: 열사람, 1988), p. 18, p. 201.

53) 김영호, “한국전쟁 원인의 국제정치적 재해석: 스탈린의 물백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3호 (1997년 가을), p. 207. 그는 달린과는 달리 내전적 기원(내인)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

54) 서주석, “한국전쟁의 기원과 원인: 냉전체제 후의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논총 제16집: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1997), p. 29.

등을 사이에 위치 지을 수 있다. 보다 조약하게 단순화한다면 현재 논쟁의 축은 ‘스탈린주도설’(김영호)과 ‘김일성주도설’(박명림, 신복룡)로 요약될 수 있다. ‘스탈린의 전쟁’인가 ‘김일성의 전쟁’인가 하는 점이다.

6·25전쟁은 남북대립의 내전적 기원이 배경으로 이미 있었던 상황에서 김일성이 내전적 상황에 편승해 전쟁 발발을 시도했을 때 스탈린(Joseph Stalin)이 이를 적극적으로 원조해 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을 제공했다. 만약 좌우익대립에 의한 분단정부 수립⁵⁶⁾이라는 내전적 기원⁵⁷⁾이 없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내전적 상황은 전쟁 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⁵⁸⁾ 또한 만약 김일성의 개전의지가 없었다면 스탈린이 전쟁을 강요할 상황은 아니었다. 국제적인 요인이 아무리 압도적이었다 하더라도 김일성의 의지가 없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의 개전의지는 전쟁 발발에 있어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⁵⁹⁾ 그런데 반대되는 가정도 가능하다. 만약 김일성의 개전의

55) 김학준,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 광복50주년 기념학술대회, 한국국제정치학회, 1995년 5월 13일, pp. 31~35; “전쟁기원에 대한 해석의 시각,” 전쟁기념사업회 (편), 『한국전쟁사 2: 전쟁의 기원』 (서울: 행림출판사, 1990), pp. 49-51; 신복룡, “한국전쟁의 기원: 김일성의 개전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3호 (1996년 가을), pp. 164~168;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서울: 나남, 1996), pp. 181~199. 박갑동도 김일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 구윤서 (역) (서울: 바람과 물결, 1990).

56) 그런데 분할선 획정은 외인이 강요한 것이고 단정 수립 초기에는 외인이 압도적으로 우세(강요된 분단)했으며 1945년 분단의 최초 계기에서는 외인이 내인보다 중요했다

57) 내전적 기원을 논할 때 1949년 38선 근처의 군사충돌만을 지칭하는 견해가 있다. 38선 근처의 긴장이 발발의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는 볼 수 있어도 이것만이 기원인 것은 아니다. 분단정부 수립을 가능케 했던 민족내부의 동력이 바로 내전적 기원인데, ‘총격전 등의 양상을 표출할 수 있게 만든 좌우대립’이 바로 그것이다.

58) 1970년대부터 소련과 6·25전쟁의 기원을 연구했던 스투엑은 최근의 저서에서 6·25전쟁이 내전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p. 10-13; “The Soviet Union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World Politics*, vol. 28 (July 1976); William Whitney Stueck, Jr., *The Road to Confrontation*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 윌리엄 스투어크, “소련과 한국전쟁의 기원,” 김철범-제임스 매트레이 (편), 『한국과 냉전』 (서울: 평민사, 1991).

59) 따라서 내인은 전쟁 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요인이므로 6·25전쟁의 배경으로서의 내전적 기원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 요인은 다음에 언급되어 있다. 柳在甲, “6·25전쟁연구: 전쟁발발의 대내적 원인분석,” 『국사관논총』 제28집 (1991), pp. 33~78.

지는 있었으나 스탈린의 지원이 없었다면 전쟁의 발발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일성의 개전 주도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전쟁발발의 유일한 요인으로 간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스탈린의 역할도 중요한 변수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일성(내인)과 스탈린(외인) 양인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다.

전쟁은 김일성이 주도했고 스탈린은 지원자였지만, 스탈린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김일성이 주도하지 않았다면 스탈린이 전쟁을 강요했을 리는 없으므로 양자는 전쟁 발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따라서 6·25전쟁은 김일성의 주도과 스탈린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어났던 일종의 공모이며 공동 전쟁이었다(그렇다고 책임이 5:5로 균분된다는 말은 아니다. 가중치를 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설 중에는 ‘김일성주도스탈린지원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련문서의 공개의도가 그들의 전쟁 책임 회피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김일성이 1949년 소련의 반대를 꺾고 결국 전쟁의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에 비추어보면 그의 전쟁 주도는 상당히 강했음을 알 수 있다.⁶⁰⁾ 그런데 추진력 면에서는 김일성의 힘이 컸지만 정치적 감각이나 국제적 정세판단은 스탈린이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추진력을 스탈린이 통제’했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김일성이 꼭두각시나 괴뢰였던 것은 아니다. 다소 비유적으로 말하면 김일성은 ‘6·25전쟁’이라는 영화의 주연배우였고 스탈린은 감독이었다고 할 수 있다.⁶¹⁾ 아무리 좋은 감독이 좋은 시나

60) 한편 모택동은 소극적이었으며 스탈린도 김일성에 비해 덜 적극적이었다고 陳毅 원수의 아들 陳曉魯(軍事 研究家)는 1989년 주지안룽에게 말했다. 朱建榮, 『毛澤東의朝鮮戰爭: 中國が鴨綠江を渡るまで』(東京: 岩波書店, 1991, 2004년 개정판); 주지안룽(朱建榮),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각수 (역) (서울: 역사넷, 2005), pp. 66~69.

61) 준비된 선수 김일성에 대해 스탈린은 ‘출발’ 신호를 내린 격이라고 하버드대학교 올람 교수는 비유했다. Adam B. Ulam, “Letters: Stalin, Kim, and Korean War Origins,” 10 Dec. 1993, i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4 (Fall 1994), p. 21. 스탈린은 설계자이고 김일성은 주동자, 모택동은 협조자였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리오를 가지고 통제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배우가 형편없으면 그 작품은 성공적으로 만들어 질 리가 없다. 좋은 감독과 좋은 배우가 만나야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6·25전쟁의 개전에 있어 김일성-스탈린 양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적인 관계였다.

그런데 유기적 시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각 변수의 힘은 차등적일 수 있다. 어느 힘이 다른 힘에 우세하여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힘의 크기 면에서 상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 삼자는 전쟁 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힘의 크기 면에서 순서를 매긴다면 1)김일성의 개전의지,⁶²⁾ 2)스탈린의 승인과 지원,⁶³⁾ 3)내전적 기원⁶⁴⁾ 삼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부, 역동적으로 상호상승작용을 일으켜 전쟁으로 귀결되었다.⁶⁵⁾

위와 같은 개인적 변수화를 국가별 차원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 6·25 전쟁의 기원과 발발은 1)북한과 2)남한(이상 국내요인), 그리고 3)소련

62) 스탈린과 김일성 양자는 모두 전쟁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요인이었다. 단지 누가 더 적극-주도적이었으며 누구의 힘이 더 결정적이었는지 상대적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탈린이 사주했다는 가설은 일단 그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탈린의 일방적 승인'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다. 스탈린의 동의가 없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동의에 준하는 승인'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소련 문서에는 승인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으므로 승인이 아니고 평등한 입장에서 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의라는 표현도 썼으므로 일방적 승인이나 평등한 동의가 아닌 '동의급 승인'으로 볼 것이다.

63) 정용석 교수는 2009년 6월 16일 이완범의 논문에 대한 논평을 통해 김일성은 주범이고 스탈린은 공범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같은 날 류재갑 교수의 논평문에는 전쟁 발발의 책임면에서 스탈린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마오쩌둥이고 김일성은 행동대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형식상으로는 김일성이 주도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탈린이 주도자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냉전시대의 이러한 평가는 탈냉전기 소련 문서의 공개로 스탈린과 김일성의 순위 바뀔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이완범의 탈냉전기의 연구경향에 의거한 반박에 대해 소련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공개된 것은 거짓 문서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용석 교수는 소련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그 책임을 희석시키려 했던 것은 사실일지라도 회고록이 아닌 문서(document)인 한에서는 그 신빙성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일성의 편지라며 로신, 슈티코프 등을 통해 스탈린에게 전달된 문서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소련 문서의 정리 시점에 스탈린 격하운동이 벌어졌으므로 스탈린의 역할을 사실 보다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64) 남북정부수립으로 귀결된 남북간의 내전적 요소는 발발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며 배경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원(origi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과 4)미국(이상 국제요인)이라는 핵심적 행위자 4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4자의 행위자 외에 5)중국(거의 필수적이었으므로 비교적 중요한 국제요인)과 6)일본(비교적 부차적인 국제요인)을 배경적-국제적 요인으로 첨가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의 국내외적 요인들은 유기적인 틀 속에서 대립적 양상을 증폭시켰다.⁶⁶⁾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김일성과 스탈린, 毛澤東이 각각 북한과 소련, 중국의 국가적 입장과 동일시 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냉전시대의 공산주의 국가를 분석하는 이론인 전체주의적 접근에 의하면 소련·북한·중국의 경우는 최고지도자의 입장이 일개 국가의 입장과 동일시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즉 초법적인 존재 스탈린의 말은 곧 법과 같다는 것이다. 개인보다는 구조를 중시하는 수정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시각은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주의적 접근은 탈냉전기인 현재에도 스탈린·김일성·毛澤東 지배하의 공산국가를 분석하는 유용한 가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65) 이외에 4)毛澤東의 조건부 지원약속 5)남의 북진통일론 6)미국의 일본과의 單獨講和 추구도 전쟁발발에 일조를 한 부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6개의 변수 중 1)과 5)는 3)에 포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가장 중요한 발발 요인인 1)과 2) 중에서 어느 것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했는지 단정하기는 현재로서 어렵다. 김일성의 주도적 역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스탈린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스탈린의 주도적 역할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김일성이 스탈린의 거시적 계획 내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웠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만약 스탈린이 전쟁을 주도하려고 해도 만약 김일성이 세밀한 계획 없이 수동적이었다고 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스탈린이 승인하거나 물적으로 지원하고 정신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으면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66) 유기적 시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앞의 4자의 행위자 중 하나가 없었더라면 아마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단순한 가정부터 하면 만약 북한과 남한 중 하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단이 없었다는 가정이므로 전쟁은 당연히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분단은 6·25전쟁의 중요한 배경 혹은 기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분단의 기원은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을까? 그것은 당연히 미·소대립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혹은 소련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분단은 없었을 것이며 당연히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남북대립은 있었으나 소련의 지원이 없었다면 갈등은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남북대립과 소련의 지원은 있었으나 미국의 지원과 개입이 없었다면 6·25전쟁은 일어났어도 초기에 끝나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따라서 6·25전쟁은 4자의 행위자가 두 개의 축을 형성, 상호대립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자의 행위자는 전쟁존재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자이다. 그런데 행위자 6자 중에서 6·25전쟁을 가져오게 한 요인 면에서 그 비중은 다를 수 있다.

개인·국가 차원의 혼용 입장을 지지하고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⁶⁷⁾

IV. 맺음말

분단에 관한 성격을 규정한 내인론과 외인론의 양분법과 연결해 볼 때 6·25전쟁의 성격규정은 크게 내전, 국제전으로 분간할 수 있다. 내전이라 함은 계급전쟁의 발전 형태로 파악할 수 있으며 혁명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에 비해 국제전론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냉전 출현 과정 속에 미국과 소련(중국)이 정면으로 대립한 전쟁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미중전쟁이 일어났으므로 이 해석도 일면 타당해 보인다.

내전과 국제전 외에 대리전이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맹주인 미-소를 각각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결했다는 것이다. 체제간 대립이 내재화되어 대리전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양극단적인 개념을 조정하기 위해 복합전이라는 개념을 설정했다. 1948년 4월 14일 남북협상 국면에서 이를 후원하였던 문화인 108인 선언에서는 전쟁을 예견했는데 분단정부 수립 후 오는 사태는 민족상호의 혈투가 있을 뿐이니 “내전같은 국제전쟁이요 외전같은 동족전쟁”⁶⁸⁾이라고 예측했던 것이다.

6·25전쟁은 남북간의 분단정권 수립에서 기원하여 북측의 기습 도발(김일성의 주도)에 의해 일어난 내전으로 출발한 것처럼 보였다. 전쟁이

67) 스탈린과 김일성에 대한 전기적 접근과 문서고의 자료 등을 통해 6·25전쟁을 접근한 소련군 종군기자(중위) 출신의 저서는 다음의 것이 있다. 가브릴 코로트코프(Gavril Korotkov), 『스탈린과 김일성』, 이건주 (역), 전3권 (서울: 동아일보사, 1992).

68) “남북협상을 후원함,” 문화인 108인 선언, 1948년 4월 14일, 『새한민보』, 제2권 9호 (1948년 4월 하순호), p. 14.

북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자 대한민국의 후원자 미국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전쟁은 새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전쟁 발발 국면에서 김일성을 제어했던 소련이 그 개입을 은폐한 상태에서 중국이 1950년 10월 개입하게 되면서 이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전쟁 - 미·중간의 국제전으로 전화되었다. 내전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였던 전쟁이 국제전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결국 내전과 국제전은 중첩되어 복합적으로 전개되었으므로 국제전이자 내전이다. 따라서 내전적 성격을 강조하는 ‘국제전적 내전’이 아니라 복합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명실상부한 내전이거나, 국제전, 미·소의 대리전은 아니며 북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조국[민족]해방전쟁’도 아니다. 1945년 8월 미국의 38선 획정과 소련의 동의로 인해 국제적 성격으로 시작된 한국 분단에 1946년 초 탁치 논쟁으로 인해 내전적 성격이 가미되었고 1948년 소련과 미국의 주도에 김일성과 이승만-한민당 세력이 견인되어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 분단이 구축된 상태에서 1950년 김일성이 스탈린의 승인과 모택동의 지원약속이라는 외적 요인을 끌어들이며 내전을 가장한 복합형 전쟁으로 6월 25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말 미국의 개입과 1950년 10월 중국의 개입으로 ‘국제전적 성격이 보다 강화된 복합전’으로 전화되었다.

1948년 양 정부수립부터 1950년까지를 보다 세밀하고 유동적으로 본다면 1948년 남한 내의 내전에서 출발했다가 1949년 여름 남북간의 38선에서의 산발적 전투가 빈발해 남북내전이 되었으며 10월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결국 1950년 6·25가 발발한 후 미국(1950년 6월 하순)과 중국의 개입(1950년 10월)때문에 국제전으로 전화되었다는 시각도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중국·소련 북방3각이 전쟁을 처음부터 주도했으므로 ‘내전적 상황을 이용하고 국제전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의 특성이 시종 일관 지속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쟁의 발발을 주도한 인자 중에 북한의 지도부 특히 김일성이 있으므로 이 전쟁은 명실상부한 국

제전은 아니다. 만약 전쟁 개시 국면에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등 발발을 주도하지 않았으면 스탈린이 자본주의 국가와의 전쟁을 주도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김일성의 역할은 무시될 수 없다.⁶⁹⁾ 또한 스탈린이 승인하고 지원하지 않았으면 김일성이 홀로 도발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양인은 전쟁 발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필요충분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분단의 외인과 내인도 어느 한 쪽이 없었다면 분단이 성립할 수 없었으며 전쟁 발발도 외인과 내인 모두 필요했으므로 분단과 전쟁은 모두 복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분단 형성 국면에서는 외인이 상대적으로 주도적이었던데 이론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전쟁 발발 국면에서 외인과 내인 어느 쪽이 더 주도적이었는지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1949년 38선 근처의 충돌이 빈발했던 국면에서는 내인이 주도적이었으나 9월 스탈린이 제어했을 때에는 내인의 힘은 약화되었다. 1950년 북방삼각관계가 전쟁 발발을 주도하는 국면에서는 외인이 주도적이었으므로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직후 소련이 직접 참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역할을 은폐하여 남북만이 대립했으며 중

69) 박명림 박사는 6·25전쟁이 침략전쟁이었으며 민족내부의 단일민족국가 수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지만 단순한 민족해방전쟁이나 시민전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합법적 권력체인 두 개의 분단국가간의 민족의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는 민족 내부의 전쟁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나 분단의 등장원인, 38선의 복합적 성격과 전쟁의 결정 및 발발에 깊숙이 개입된 소련과 중국의 존재로 인하여 애초부터 이 전쟁은 결코 순수한 내전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미국과 유엔마저 개입함으로써 국제전으로 상승하여 버렸다. 미국과 중국 참전 이후에는 전혀 이승만과 김일성의 전쟁이 아니었다.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결정은 워싱턴과 동경, 모스크바와 북경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서울: 나남, 1996), p. 895. 그는 전쟁의 기원을 미·소의 분할점령에 의한 분단으로 보면서 분단의 책임을 두 강대국에게 돌려야 하지만 전쟁에 대한 책임은 김일성(과 박헌영) 세력에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의 책, pp. 896~897쪽. 또한 6·25전쟁은 1950년의 사회주의 북한을 남한에까지 확산시키려는 시도였다고 해석했다.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 2002), p. 753. 한편 김동춘 교수는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이라는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인의 체형 영역에서 살펴보면 볼수록 국가는 중요하지 않은 범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김동춘, “한국전쟁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표인주 (외),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 (Korean War, Community, and Residents' Experiences)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p. 198~200.

국은 10월에야 참전했으므로 남북의 대결을 무시하고 국제전으로만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아직도 국제전이라기보다는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참전하기 전까지의 짧은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외인으로 출발했던 분단이 명실상부한 복합형 분단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으며 전쟁은 '내전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 '국제전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으로 전화되었고 중국의 참전으로 '국제전적 성격이 더 심화된 복합전'이 되었으며 결국 종전되었다. 이렇게 6·25전쟁은 국면 국면마다 외인과 내인 중 우세하게 작용한 측면은 있어도 복합전의 성격을 상실한 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 1946년 탁치 논쟁으로 분단에 내전적 성격이 가미된 이래로 지금까지 분단과 전쟁은 민족내외 요인이 의 복합적으로 결부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쟁 자체는 국제전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이지만 내전적 성격도 없어서는 안 되므로 간과될 수는 없다. 전쟁은 국제전적 성격이 우세하게 출발했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대규모 외국군 병력은 철수했으며 남과 북만이 동족상잔의 씻을 수 없는 기억을 안고 각각 대치했으므로 이 전쟁의 결과로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 분단에 내전적 성격이 더 추가되어 명실상부한 복합형 분단으로 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휴전협상 조인 이후 중국군이 철군하고 미군 주력병력도 철군하여 외인이 다소 약화되어 명실상부한 복합형이 지속화되는 계기가 조성되었고 민족분단이 대내외적 구조가 완성되었다. 국제적 성격이 우세했던 분단이 없었으면 전쟁도 없었으므로 분단과 전쟁은 모두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6·25전쟁은 내전이자 국제전이고, 국제전이자 내전이였다. '국제전적 내전'이라는 용어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내전적 국제전'이라는 말은 각각 내전과 국제전이라는 성격규정에 각각 국제전적 성격과 내전적 성격이 가미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복합전은 이 전쟁을 내전인지 국제전인지 일방적으로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만든 규정이

다. 그렇지만 북한전이라해도 내전적 성격이 강한 북한전은 있을 수 있으며 국제전적 성격이 강한 북한전도 있을 수 있다. 발발을 모의한 단계에서는 국제전적 성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정작 발발 직후에는 김일성 혼자 싸우면서 내전적 성격이 부각되었고 미국과 중국 참전으로 국제전적 성격이 더 강화되는 등 국면마다 그 특성이 변했다. 결론적으로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북한형 분단’ 구조가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북한전’을 발발하게 했으며 소련이 개입을 은폐하자 형식적으로는 ‘내전적 성격이 우세한 북한전’의 양상을 보였으나 미·중 참전으로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북한전’으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전화되었다.

또한 분단사가 진전되면서 갈수록 국제적 성격은 약화되었으므로 현재는 남북협력에 기반한 남남대립의 해소로 내전성을 약화시키면서 주변열강으로 하여금 통일을 지지하게 하여 국제적 성격을 없애 버리는 민족 내외 갈등의 동시 해소가 통일의 길로 가는 하나의 방책이 아닐까 한다. 현재는 남남대립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으나 통일로 가는 거대한 장정을 막기에는 너무 지엽적이며 일상적인 갈등이 아닌가 한다.

논문접수일 : 5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28일

참고문헌

- 가브릴 코로트코프(Gavril Korotkov), 이견주 역, 『스탈린과 김일성』 전3권, 서울: 동아일보사, 1992.
- 강정구,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한 재인식: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중심으로,” 『현대사회』 제10권 1호 (1990년 봄-여름 합본호)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

-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서울: 두레, 1998.
- _____, “한국전쟁 원인의 국제정치적 재해석: 스탈린의 룰백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3호 (1997년 가을)
- 김철범-제임스 매트레이(편), 『한국과 냉전』, 서울: 평민사, 1991.
- 김철범 (편), 『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혀진 韓國 戰爭의 진상』,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김학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의 정치경제사,”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DMZ 생태평화 국제학술회의, 2006년 5월 2일 발표논문
- _____,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 광복50주년 기념학술대회, 한국국제정치학회,
- 로버트 시몬스, 기광서 역, 『한국내전』, 서울: 열사람, 1988.
- 柳在甲, “6·25전쟁연구: 전쟁발발의 대내적 원인분석,” 『국사관논총』 제28집 (1991)
- 민족사학회 (편), “미제침략백년사,” 『민주조선: 조선대학교 교지』, 창간호(3월), 1989.
-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 구윤서 역, 서울: 바람과 물결, 1990.
-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 2002.
- _____,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서울: 나남, 1996.
- _____,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서울: 나남, 1996.
- 브루스 커밍스, 김동노 외역,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 서울신문사,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비밀 외교문서』, 서울: 서울신문사, 1995.
- 서주석, “한국전쟁의 기원과 원인: 냉전체제 후의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논총』 제16집.
-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 송재경, “중국의 한국전 개입의 내정적(內政的) 요인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91

- 신복룡, “한국전쟁의 기원: 김일성의 개전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3호(1996년 가을)
- 沈志華, “蘇聯과 韓國戰爭: 러시아 비밀 해제 당안 속의 역사 진상,” 『現代北韓研究』 3호(2000)
- 안병우 (외), 『북한의 한국사 인식 2』, 서울: 한길사, 1990.
- 楊奎松, “中國의 조선 출병 시말,” 『現代北韓研究』 3호(2000)
- 와다 하루끼, 서동만 역, 『한국전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팔리아 바자노바,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서울: 열림, 1998.
- 외무부,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 (1949. 1-1953. 8)』, 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1994.
- 이병주, “중국의 한국전쟁개입과 그 영향,” 한국국제정치학회 (편),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 (서울: 국제정치학회, 1990)
-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서울: 백산서당, 2000.
- 전쟁기념사업회(편), 『한국전쟁사 2: 전쟁의 기원』, 서울: 행림출판사, 1990.
-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서울: 돌베개, 2006.
- 주지안롱(朱建榮), 서각수 역,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울: 역사넷, 2005.
- 표인주 (외),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서울: 태암, 1990.
- 하기와라 료, 최태순 역, 『한국전쟁』, 서울: 한국논단, 1995.
- 韓國戰爭研究會 (편), 『탈냉전시대 韓國戰爭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 황인모 (역), 『중공과 한국전쟁』, 서울: 병학사, 1989.
- 홍인표 역, 『중국이 본 한국전쟁: 인해전술의 전쟁기록』, 서울: 고려원, 1992.
- 朴斗福, 『中共參加韓戰原因之研究』,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5.
- 沈志華, 『毛澤東-斯大林 与 朝鮮戰爭』,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3.

- 萩原 遼, 『朝鮮戦争』, 東京: 文藝春秋, 1993.
- 朱建榮, 『毛澤東の朝鮮戦争: 中國が鴨綠江を渡るまで』, 東京: 岩波書店, 1991, 2004.
- 平松茂雄, 『中國と朝鮮戦争』, 東京: 勁草書房, 1988.
-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Li Xiaobing, Wang Xi, and Chen Jian, "Mao's Dispatch of Chinese Troops to Korea: Forty-Six Telegrams, July-October 1950," *Chinese Historians*, Vol. 5, No. 1(Spring 1992)
- Lowe Peter,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ondon: Longman, 1986.
- Merrill John, *Korea: The Peninsula Origins of the War*, Newark, Delaware: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 Stueck William,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Stueck, Jr. William Whitney, *The Road to Confrontation*,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
- Stephen Weiss Lawrence, *Storm and the Cradle: the Korean War and the Earl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53*,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 Whiting Allen S.,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 『데일리 NK』
- 『새한민보』
- 『서울신문』
- 『중앙일보』

〈Abstract〉

The definition of the Korean War and responsible for the war

Lee, Wan-bo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ing of The Korean War. The Korean War ended in a draw with no victors and no vanquished. However, it was the most traumatic disaster in Korean history resulting in millions of people killed with the entire territory demolished. After the war there were no action of apology, pardon, reparation, and punishment of war criminals, but a lasting regret in every corner of the country. For many reasons the Korean war is still unfinished war. So many academic studies on the Korean War started in 1970s. The first, traditional explanation was prevailed. But in the 1980's the revisionist interpretation began to dominate a group of junior scholars. The debate between traditionalism and revisionism brought to emerge the post-revisional synthesis based on revisionism or traditionalism plus archive in the early 1990. The debate on revisionism and traditionalism was revitalized within academic circles through this post-revisional multi-archival method. But nowadays the Korean War's concept is more clear than ever. Because many data about the Korean War opened by pre-Soviet document and China. It told us exactly who is take arms ahead, how to prescribe the Korean War.

※ Key word : The Korean War, traditionalism, revisionism, compound war